

## 2018년 12월 겨울 훈련 집회 표어

하나님은 사탄의 강탈하는 손으로부터 이 땅을 정복하고 되찾아 오는 일에 있어서  
그분을 대표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은 하나님과 여행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군대로 편성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이 나실인이 되기를 갈망하신다.  
나실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도록 절대적이고도 궁극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분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만족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위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그리스도의 동반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존중해 드리며,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고,  
사탄적인 혼돈을 정복하며, 신성한 경륜 안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신 것에서 시작하여 승천을 거쳐  
두 번째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이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며,  
교회의 유일한 인도자와 중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고 계신다.

## 민수기

### 메시지 1

##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군대로 편성됨

성경: 민 1:1-3, 18, 24, 45-46, 2:1-2, 17, 32, 출 12:41, 51, 13:18

- I. 민수기를 단순히 방황과 반복되는 실패에 관한 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민수기는 승리와 영광에 관한 책이다 — 민 1:1-3, 18, 24, 45-46, 2:1-2, 17, 32, 33:52-53.
- A. 민수기는 깃발과 표지(標識)가 있는, 다시 말하면 편성과 질서가 있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제시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쳐뿐 아니라 군대를 가지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 민 2:17, 출 25:8, 6:26, 7:4, 12:41, 51, 13:18.
- B. 민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스러운 책이다. 민수기의 처음에서 하나님은 군대를 편성하셨고, 민수기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이 군대가 정복한 땅을 나누는 일에 관한 기록을 본다 — 민 1:1-3, 33:52-53.
- C. 민수기에 묘사된 그림은 하나님께서 땅을 되찾아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서 움직이시고 그분의 원수를 정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의 실체로 함께 연합된 삼일 하나님과 그분께 선택받은 백성을 보여 준다 — 민 10:33-36, 엡 3:11.
- II. 민수기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삶의 의미와 증거와 중심이시며, 그들의 여정과 전쟁에 인도자와 길과 목표이시라는 것이다 — 민 1:5-53, 골 2:9.
- A. 민수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의 의미로서 계시되신다.
1. 증거궤는 증거의 성막의 중심이었다 — 민 1:50, 53.
  2. 성막과 함께하는 증거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의미였다.
  3. 우리 인생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통해 표현되시는 것이다 — 골 2:9, 1:27.
  4. 하나님의 경륜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이 우주의 목적이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의미이심을 깨닫기 시작한다 — 골 1:15-20, 2:2, 9-10, 17, 3:4, 10-11.
- B.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의미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거이시다 — 민 1:53.

## 결정 연구 개요

### 메시지 1 (계속)

1. 증거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를 관심하는 것이었다.
  2. 구약에서 증거는 율법을 가리킨다.
    - a. 율법이 기록된 두 돌판은 증거판이라 불리었고(출 25:21) 궤 안에 두어졌다.
    - b. 증거판이 궤 안에 넣어졌기 때문에, 이 궤는 증거궤라고 불리었다.
    - c.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증거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해 준다.
    - d.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묘사인 율법은 신성한 모든 속성들을 가지신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골 2:9.
  - C.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이시다 — 골 1:15, 18.
    1.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주위에 진을 친 방식으로 묘사된다 — 민 2:2.
    2.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중심으로 취해야 한다 — 히 2:12.
  - D. 그리스도는 인도자와 길과 목표이시다 — 마 23:10, 요 14:6, 빌 3:12-14.
    1. 그리스도는 움직이시고 행동하시며 항상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이시다.
      - a.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도자(마 23:10)와 우리의 길(요 14:6)과 우리의 목표(빌 3:12-14)이시다.
      - b. 교회 안에서 유일한 인도자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그분의 목표를 향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 길과 목표는 둘 다 사실상 그리스도 자신이다.
    2.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표, 곧 우리의 뜻대가 되셔야 함을 말해 준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하는 목표이시다.
  - E.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집과 함께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수 있는 입지를 얻으실 길이 없을 것이다 — 마 16:16-19.
- III.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이 어떻게 제사장 군대로 편성되어 하나님과 여행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권익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 민 1:1-4:49, 9:15-10:36, 12:16, 20:1-21:35, 31:1-54, 33:1-49.

## 민수기

### 메시지 1 (계속)

- A. 군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처소와 함께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입지를 이 땅에서 얻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다 — 출 12:41, 51, 13:18.
- B. 민수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바로 군대의 편성과 그 군대의 여행과 군대의 싸움이다 — 민 10:33-36.
1. 군대의 편성은 싸움을 위한 것이었고, 싸움을 위해서는 군대가 한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2. 이스라엘 자손은 항상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집을 위해 건축된 한 백성을 얻으실 수 있도록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 민 33:1-49.
- C. 민수기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군대로 편성되었음을 제시해 준다.
1. 이 군대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 민 1:1-3.
  2.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증거를 보호하기 위해 싸울 수 있는 군대로 편성되었다.
    - a. 민수기의 그림에 따르면, 군대는 성막이 세워진 범위 곧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성막 둘레에 진을 쳤다 — 민 2:2.
    - b.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분의 증거를 위해 싸우는 군대로 보셨다 — 출 12:41, 51, 13:18.
    - c.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었지만, 사실상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 싸우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 곧 증거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다.
  3. 이 전쟁에는 두 가지 주된 기능이 있었는데, 하나는 원수들과 싸우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대표하는 성막을 지키는 기능이었다 — 민 1:1-3, 21:1-3.
- D. 이스라엘 집을 싸우는 군대로 편성하는 것에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 제시된 원칙을 본다.
1. 하나님은 사탄의 강탈하는 손으로부터 이 땅을 정복하고 되찾아 오는 일에 있어서 그분을 대표하는 단체적인 한 사람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 엡 4:24.
  2. 하나님은 가나안이라 불리는 좋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의 강탈하는 손에서부터 이 땅을 취해야 했다. 그들은 모든 원수들과 싸우고 그들을 패배시킴으로써 그 땅을 얻어야 했다 — 민 21:1-3.

## 결정 연구 개요

### 메시지 1 (계속)

- E. 하나님의 군대는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혼과 바산 왕인 옥을 패배시켰다 — 민 21:1-3, 21-35.
1. 아랏 왕(민 21:1)과 아모리 족속의 왕(21절)과 바산 왕(33절)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문지기들’로서 사탄을 위해 가나안 땅 곧 어둠의 왕국을 지키고 있었다.
  2.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영토를 지나가야 했으며, 그들과 싸우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영토를 차지해야 했다.
  3. 이것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이러한 왕들로 상징된 원수들을 패배시키고 그들의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엡 3:8, 6:10-12.
- F. 구약의 예표에서 가나안은 두 방면을 나타낸다.
1. 긍정적인 방면에서 가나안은 풍성한 땅으로서(신 8:7-10) 측량할 수 없는 풍성(골 1:12, 엡 3:8)을 가지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2. 부정적인 방면에서 가나안은 사탄의 왕국 중에서 공중의 부분 곧 하늘의 부분을 상징한다.
    - a. 이 세상의 왕(요 12:31)이며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엡 2:2)인 사탄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행 26:18) 그의 천사들(마 25:41)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은 사탄의 부하들로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엡 6:12)이다. 따라서 사탄은 그의 왕국(마 12:26)과 어둠의 권세(골 1:13)를 가지고 있다.
    - b. 가나안 족속은 사탄을 따른 타락한 천사들 곧 반역한 천사들(계 12:4, 7)의 예표인데, 이들은 사탄의 왕국(비교 단 10:13, 20)에서 능력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되었다.
    - c.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누리기 위하여 가나안 족속과 맞서 싸운 것은 성도들이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지체를 포함한 교회 전체가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엡 6:12)과 맞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예표이다.
    - d.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단체적인 전투원이 되어서 사탄의 공중의 세력과 싸워,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확장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셔서 땅을 상속받으실 수 있게 해야 한다 — 마 16:27-28, 계 11:15, 12:10.

## 민수기

### 메시지 1 (계속)

- G.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한 가지, 곧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 준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의미와 증거와 중심과 인도자와 길과 목표로 취하고, 계속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대로 편성된 한 백성을 얻으심으로써, 이 땅에서 입지를 얻으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집으로 건축된 한 백성을 얻으시는 것이다 — 창 1:26-28, 출 12:41, 51, 13:18, 마 16:16-19, 엡 6:10-12, 계 17:14, 19:11-16, 21:2, 10-11.